

환경교육
The Environmental Education
1997. 10월 2호 pp. 7-18

우리나라 환경교육 및 홍보의 쟁점과 대책

최 석 진(한국교육개발원)

I. 서론

요즘 심화되는 환경문제 해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실천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의식과 태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교육과 홍보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환경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992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발표한 Agenda 21등을 비롯한 국내·외의 여러 자료에서도 누차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문에 관심은 증대되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상황은 미흡한 편이다. 특히, 환경교육은 학교등의 제도권 교육을 중심으로한 학교환경교육과 환경민간단체(NGOs)를 중심으로한 사회환경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근래에는 각각의 이들 분야에서 일부는 부족하면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나타나거나 지향 방향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환경홍보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환경교육과 홍보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의의가 크다. 이러한 환경교육과 홍보에 관한 추진 시책은 주무 부서인 환경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문체부를 비롯하여 내무부, 보건복지부, 상공자원부, 정무장관실등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여러 민간 단체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에,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기에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 탐색 및 각계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II.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발전

1. 환경교육 및 환경홍보의 의의

환경교육은 환경 및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

※ 이 원고는 최석진의 5명의 「환경교육·홍보정합계획 수립 연구」(1997. 한국교육개발원)를 바탕으로 보완한 것임.

<표 1> 환경교육과 환경홍보의 차이점

	환경 교육		환경홍보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1. 교육주체(지도인력)	자격있는 교사	제한이 없음(인물, 기관)	
2. 교육대상	연령과 자격이 한정	연령과 자격 제한이 없음	
3. 교육방법	특정한 상황속에서 면접적 교육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4. 공간	교실, 실험실, 자연	한정되어 있지 않음	
5. 교재, 미디어	표준화되어 있음	비표준화	비표준화
6. 재정	공적인 교육재정	사적인 자원(개인, 언론, 기업 등)	
7. 교육기간	학년/학기	일정기간	특정되어 있지 않음

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 영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환경의 구성,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 각종 환경 오염 문제의 원인·현상·대책의 파악, 환경보전 및 위생의 방법 및 대책의 파악과 실천을 중심으로하여, 근래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건전한 소비생활, 영양가 있고 깨끗한 식품 섭취, 약물 중독 예방, 교통 안전, 환경 라운드(Green Round)의 이해와 대책 등이 포함되어,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의 포괄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교육을 대상과 방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및 가정환경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환경홍보는 환경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환경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토록 하고, 태도 변화를 일으켜 환경보전 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이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홍보는 넓은 의미에서 환경교육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으나, 교육주체와 대상 및 교육의 장(場)이 다르다. 즉, 환경홍보는 대체로 주체와 대상 및 방법등이 특정화되거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양하게 이루어 진다.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과 환경홍보의 관계를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환경교육과 환경홍보의 현황

<표 2> 우리나라와 세계 환경교육의 발전과정

	외 국	한 국
1948	·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IUCN) 발족	· 공해방지법 제정
1963		
1967	· 일본 공해대책 기본법 제정	· 최초로 국립공원 제정
1970	· 미국환경교육법 제정 및 환경청(EPA)설립	· 새마을 운동 전개
1971	· 일본 환경청 설치	
1972	·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선언' 발간 유엔환경계획(UNEP) 발족,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발간	

	외 국	한 국
1973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설립
1974	· 일본 자연보호헌장 제정	
1975	· 베오그라드 헌장 발표, 베오그라드 국제환경교육회의	· 한국환경보호협의회(민간단체) 발족
1977	· 트빌리시 정부간 환경교육 회의 · 프랑스 교육부에서 학교 환경교육 정규화를 규정	· 정부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제창, 자연보호협의회 구성 ·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환경교육 세미나
1978		· 자연보호헌장 공포, 환경보전협회 발족
1979		· 한국 IUCN 가입
1980	· 유럽 환경교육 워킹 개최, 독일에서 환경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도 권장	· 환경청 설립, 헌법에 환경권 조항 신설
1982	· 제 10회 UNEP 관리이사회특별회의: 환경교육 강조 (나이로비)	· 제 4차 초,중,고교 교육과정 공포 (환경교육 강조)
1985		· 환경청 환경보전 시범학교 1차 지정 및 환경 교육 심포지움 개최
1987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CED) 보고, Our Common Future 발간, 모스크바 환경교육 국제회의,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 유럽 각국이 모여 '유럽 환경의 해' 제정	· 제 5차 교육과정 공포(환경 교육을 8대 중점 지도 사항으로 명시) · 명예 환경 감시원제
1988	· 바젤협약 채택	· 환경청 발주, 한국교육개발원 개발의 환경교재 「사람과 환경」 발간, 이후 90년까지 초,중,고교용 자료 개발 보급
1989		· 한국환경교육학회 발족
1990	· 미국 환경교육추진법 제정	· 한국환경교육학회 주최 환경교육 세미나 개최, UNESCO Paris 본부에 한국의 환경교육 보고서 제출
1991	· 일본 문부성 「환경교육지도자료」 - 중·고교 편 발간(소학교편은 1992년, 사례편은 1995년 발간)	·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 한국교육개발원에 환경교육연구부 설치
1992	· UN환경개발회의 개최(Rio 선언) -Agenda 21 채택, 중국인민교육출판사 「환경교육」 교재(중등학교용) 발간	· 국가환경선언 채택, 제 6차 교육과정 고시-중·고교에 「환경」 과 독립, 환경마크제도 도입
1994		·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 환경 부전공교사 자격 연수 실시,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발족
1995		·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실시
1996	· 아시아·태평양 환경교육 심포지엄(동경), 북아메리카 환경교육 정상회담 및 세미나 개최, UNEP-UNESCO 환경교육 워킹(호주)	· 환경관련학과 설치대학 급증(전문대42, 개방대11, 대학교 64개교), 환경 NGOs 급증(약 300개)
		· 해양수산부 설치, 제 7차 교육과정 시안 개발 - 중,고교에 「환경」 과 설치, · 한국 OECD 가입 - 환경문제가 주요 쟁점

1) 환경교육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1970년대 이후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90년대부터 본 궤도에 들어 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 환경교육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참고>

(1) 학교환경교육 현황

우리나라 학교환경교육은 1992년 고시되어 현재 적용 중인 제 6차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육활동에서 환경교육을 강조하여 지도하도록 되었을 뿐만아니라, 초등학교의 학교 재량시간에서 환경교육을 별도로 지도할 수 있으며, 중학교에 '환경' 과, 고등학교에 '환경과학'을 별도로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게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는 초등학교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민간출판사에서 발행한 '환경탐구'등이 사용되고있으며, 중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1종도서(소위 국경교과서)로서의 '환경' 교과서 1종류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민간회사들이 개발한 일반계용의 '환경과학'을 비롯하여, 실업계용의 '환경보전', '환경기술', '환경생태학'등이 개발되어 사용중이다. 그외에, 체계적인 초·중·고등학교용 환경교육자료들이 환경부의 지원하에 1988년부터 3개년에 걸쳐 개발된 것등이 있으나, 대부분 수년전에 보조자료를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1997년), 전국적으로 환경과목을 선택하여 지도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비율은 중학교가 11.5%(2,705개교중 311개교), 고등학교가 8.8%(1,856개교중 164개교)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선택 비율도 작년에는 더욱 낮았으나, 금년에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대에서 전폭적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하여 금년에 급상승한 것이다.

학교환경교육을 전담하는 환경교육 전공 교사는 아직 배출되지 않았으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강원대등의 대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서 환경 부전공 과정의 연수를 방학 중에 실시하여 현재 666명의 환경교사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사범계 대학에 의한 환경교사 양성

은 국립인 한국교원대학교, 공주대학교 및 순천대학교에 환경교육과가 설치되어, 2000년부터 매년 60명(각 대학별로 20명)씩 배출될 것이며, 일간계 대학에서의 교직과목 이수에 의한 환경교사 양성은 연세대와 강원대등 전국 16개 대학의 환경관련 학과 전공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1998년에 178명, 1999년 이후에는 234명씩 배출 예정이다.

환경교육의 시범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시범 학교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 및 지원 기관에 따라 교육부 지정, 환경부 지원에 의한 시·도교육청 지정 및 시·군·구 교육청 지정등이 있다. 그중에서, 환경부 지원하에 시·도교육청 지정으로 운영되는 시범학교는 1985년이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63개교가 지정되어 활동해오고 있다.

(2) 사회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은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과 환경관련 공무원 및 환경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하는 전문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환경교육은 다시 민간단체(NGOs)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지방자치단체등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민간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체미리운동연합, 한국 불교환경교육원, YMCA, YWCA와 대한부인회, 녹색어머니회등의 성인과 초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환경강좌와 생태기행등이 있다.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은 예비군과 민방위 교육시의 환경교육 및 공무원과 교원연수원등 교육훈련 기관에서의 프로그램등이 있으며, 이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환경전문교육은 환경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환경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인 전문교육과 환경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등이 있다.

2) 환경홍보

환경홍보는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대중매체, 기업체, 민간환경단체 및 기타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홍보는 각종 환경관련 보도자료 제공, 관련 인사의 대중매체 출연과 기자회견, 서한 발송 및 매체에의 기고, 공익 광고등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밖에, 환경관련 학술논문과 책자, 만화 및 비디오등 홍보물의 제작·보급, 환경관련 각종 캠페인과 전시회 및 수기 모집, 여론 형성총과의 대화 기회 확대, 환경민간단체등의 환경관련 행사 지원,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 운영등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실태를 바르게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의한 것중에서, 신문은 대부분 환경관련 보도를 늘려서, 중앙지의 경우 1991년에 약 1,110건이었으나 1996년에는 약 8,970건을 나타내었으며, 환경고정면을 편성하는 곳이 많다. 아울러, TV와 라디오 방송도 고정 프로그램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체에서도 환경친화적 기업 이미지 제고와 대 국민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환경관련 캠페인과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직접 추진하거나 환경민간단체등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민간환경단체들이 환경 관련 논문·수기·독후감·표어·포스터등의 공모전, 웅변대회, 학술토론회, 연구 조사 보고 대화와 캠페인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종교지도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환경보전에 관한 선언등을 통하여 국민 계도를 하는 환경홍보 활동이 있다.

III. 외국의 환경교육

1. 외국에서 환경교육의 주요 개념

환경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개념들은 많으나, 그 중 미국교육협회(N.E.A.)의 환경교육연구위원회에서는, 교사가 환경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다섯 가지 기본 개념으로, 다양성과 유사성, 양상(pattern), 상호작용과 상호의존, 영속성과 변화, 진화와 적응을 들고 있다.

뉴욕주립대학교와 뉴욕주 교육부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교육과정의 설계와 과정' 연구보고서에서는 환경의 주요 쟁점(issue), 문제, 개념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선의 오염 / · 건전한 소비생활 /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 에너지 / · 환경계획 및 디자인 / · 건강(오염, 식품 첨가제, 마약, 스타레스 포함)
- 토지이용과 개발 / · 자연환경 / · 오염 / · 인구 / · 자원 /
- 고체폐기물(재활용, 폐기방법, 포장 등) / · 교통문제

이와 같이 환경교육의 범주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1992년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때 강조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 -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발전하는데는 소비를 줄이고 친(親)환경적인 생활방식을 강조 해야 한다는 내용 - 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 ESSD를 실천하기 위한 많은 국제적 환경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이제 어떤 한 지역의 문제는 곧 이웃 지역의 문제로 확산되면서 전 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심각하지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후진지역이나 개발도상지역이 많으므로, 지역적, 부분적인 환경교육 활동 노력 못지 않게 공동으로 대처하며 지원도 해주는 국제적 협력과 노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국제간의 공동노력이 UN과 그 산하기구 등을 통하여 활발히 전개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주요국 환경교육의 개관

유럽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환경교육은 산업화와 더불어 많은 진보를 보이고 있다. 즉,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은 대체로 1950년대의 자연보호 또는 환경보전운동과 더불어 환경교육을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등이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연보호에 주안점을 둔 교육이나 오늘날에서는 환경보전에 투자가 미흡하며,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던 동부유럽은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미약과 투자부족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부유럽지역 국가들의 환경교육은 각 국가별 노력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UNESCO,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 : WWF) 등의 지원하에 국제적인 공동협력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환경보전과 환경교육은 이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1) 독일

독일의 환경교육은 1950년대의 환경보전 정책과 거의 동시에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환경학자에 의해서 '환경교육 안내서'(guide book)가 제작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의 대책으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고 환경정책 기반이 성립되었다. 독일의 환경교육은 197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의 자연보존 및 향토문화보호에 대한 환경교육을 주로 하는 단계와 그 이후의 근대 환경교육의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환경교육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산업화로 인한 반대급부, 인구증가, 도시팽창 등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향토문화 손실이 심각하게 나타나자, 자연보호가 사회적 요구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보다는 자연과 향토 사랑으로, 자연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1차,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1950년대의 경제복구

사업이 시작되면서 환경보호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환경 프로그램과 더불어 1970년대 초부터 제 2단계의 근대 환경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이 때의 환경 프로그램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위한 과제로서 모든 교육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활기반인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환경교육으로 기존의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독일 환경교육의 목적, 목표, 주제, 내용 영역과 지도 과목 등은 스톡홀름 및 베오그라드 현장과 트빌리시 선언 등을 준거로 한다. 1977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환경교육세계회의에 즈음해서 독일에서는 "현재의 환경교육 상황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교육이란 수업대상으로서의 환경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광범하고 복합적인 주제와 그 상호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환경교육에 관한 반성과 대안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한다.

- ESSD실현을 위한 교육강조
- '녹색전환'에서 '문화적 전환'으로 - 자연과학 및 기술위주의 환경교육에서 윤리, 철학, 문화, 사회적 및 정치, 경제적 시각을 강조
-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의 강조 - 특히 교통, 식품, 소비생활, 주택, 건강, 직장 및 학교와의 연계 등
- 환경에 관한 동기부여의 강조

2) 영국

영국의 환경교육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환경문제 인식과 함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환경교육을 위한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점증하는 관심에 부응하여 관련 조직과 활동이 많다.

영국에서의 학교 환경교육은 전통적 교과를 통하여 학제적으로 지도되며, 1970년대에는 '환경연

구'(Environmental Study) 또는 '환경과학'(Environmental Science) 등의 명칭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나, 대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리, 생물 등 환경관련 교과에서 지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환경교육은 다른 횡(橫) 교육과정적 주제 - 경제·산업 이해, 건강교육, 직업교육과 진로지도, 시민교육 -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데, 환경교육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과정을 소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무를 지도하도록 고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교육과 강한 연계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산업 이해 주제는 중요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지도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내용을 '환경에 관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환경안에서의 교육' 3가지를 통합하여 조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환경에 관한(about) 교육은 이해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인지적 이해를 주는 교육이며, 환경을 위한(for) 교육은 특수한 목적의 환경보전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목적을 가지며, 환경 안(in)에서의 교육이란 아동들의 생물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따른 활동을 관찰, 기록, 해석 및 과학적, 지리적 자료의 토의를 위한 태도나 기술의 개발로 이끄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미국

미국의 환경교육은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환경교육법(Environmental Education Act : 1970년)의 제정은 큰 전기가 되었다. 방대한 국토와 연방국가체제의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경교육이 다양하며,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모두 활발히 전개된다. 학교환경교육을 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여러 교과에 걸쳐 통합적·학제적으로 시행되지만 단독교과로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야외 환경교육과 지역사회 문제해결(problem-solving)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1996. 11) 일본 동경에서 열린 "Asian-Pacific Symposium on Environmental Education"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협력하여 환경교육을 발전시키고, GLOBE(Global Learning and Observations to Benefit the Environment)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아시아·태평양권에도 이 프로그램을 보급시키기로 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의 국제 환경교육프로그램과 Network을 조직하여 보급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지역의 환경교육 대표자회의(NAAEE)를 주재하는 등 환경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구는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환경교육진흥을 위해 각종활동을 하는데, 그 목표중에는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자료개발, 교육자의 질 제고, 주(州)정규교육과정의 포함 장려, 각 정부기관 및 민간 환경단체(NGOs)와의 협력 장려와 이들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최대한 활용,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환경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정규 교과로 선택하도록 교육과정을 제정한 주(state)도 있으며, 국가적으로 각종 교육자료 개발과 연구 및 연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ESSD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내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UNESCO나 UNEP등 유엔 기구등과 연계한 국제적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5) 일본

일본의 환경교육은 환경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공해교육'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학교 환경교육은 1970년대의 문부성 제정 '학습지도요령'(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사회과와 자연과를 비롯한 여러 교과에 걸쳐서 지도되며 탈교과적인 야외학

습도 실시된다.

일반 사회환경교육은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각종 기관과 단체의 지원 및 노력에 의해 실시되며 오늘날 환경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 요즘에는 학교의 교과를 통한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ECO Club과 같은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한 조직적 환경교육에도 관심을 둔다. 그리고 동경 등 여러 곳에 종합환경교육센터를 두고 있다.

6) 중국

중국은 최근 개발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환경문제가 급속히 심각해지면서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부교재 형식의 환경교재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교육부 산하의 인민교육출판사가 개발·보급한 중등학교용 환경교육 교과서(1996년 판)는 그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다.

7) 인도

인도는 어려운 경제·사회·교육적 여건으로 환경교육의 내용도 국가적·시대적인 것을 반영하며, 교사와 지도자 교육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 및 남부아시아 각국 환경교육의 중심 국가로서의 국제적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국립환경교육센터(Center for Environmental Education)에서는 인도에 적합한 매우 다양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지역적으로 비슷한 자연환경과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지니고 있어 그 대책 수립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환경교육의 발전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지만, 하나의 동남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지역공동체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내 국가간의 공동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 지역내 국가들의 환경교육 중에서도, 불교계

의 노력과 교육부 등에서 앞장서서 많은 교재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는 타이랜드, '인간과 환경'(Man and His Environment) - 주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한 교과- 이라는 독립된 환경교과를 초등학교에 설치한 말레이시아, '청결교육(Clean Policy)'을 국가의 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등은 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주요국 환경교육에서의 시사점

각국은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들은 각국의 환경문제와 문화를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교착함으로써 우리 환경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계 각국의 환경교육은 각각의 지역적·국가적 여건을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다. 대체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산업화와 더불어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국가일수록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나 동남아 국가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둘째, 각국은 대부분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유네스코에서 정한 것 등을 참고로 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하고, 자연보호를 비롯하여, ESSD 정신 구현과 생태윤리, 소비교육과 인구, 식량, 자원문제 및 환경오염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환경교육은 국가와 인류 전체의 민감한 문제와 자국의 교육목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각국은 환경교육을 우선 학교교육 체계내에 포함시키면서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는 말레이시아와 같이 통합교과의 성격이 있는 '환경교과'를 설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회과학, 자연과학, 도덕과 등에서 학제적으로 지도하고, 대학과정에서는 환경관련 전문 과정이 증가하고 있다. 각국이 공통적으로 큰 역점을 두는 사회환경교육은 정부와 산업체 및 민

간환경단체(NGOs)를 중심으로, 각종 단체의 활동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헌신적 노력의 영향이 많으며 대중매체의 역할도 크다.

넷째, 환경교육은 지역에서 출발하여 국가적으로 실시되나 국가와 국가간,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간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국제적 공동 협력과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와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는 바가 컸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환경과 문화 등의 조건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더욱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환경교육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IV. 현행 환경교육과 환경홍보의 현안 과제

1. 학교 환경교육

1) 환경교육 기회 제공 미흡

현재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관련된 모든 교과 활동에서 환경교육을 강조하고, 선택 교과로 환경교과를 공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환경교과의 선택이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관련 활동도 효율적으로 활발히 추진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리고,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도 원하는 학교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서, 환경교육의 확산에 제한을 받고 있다.

2) 환경교육 내용 체계화 미흡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목표·내용·방법등은 유네스코등 국제기구의 그것을 많이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는 것으로 조정하느라고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의 역사와

인력 및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미흡한 점이 아직 많은 편이다. 내용 체계화의 미흡이라는 측면에는, 환경교육 전체적인 면 보다는 대상별·시기별 및 상황별로 적절한 내용 구성과 지도 방법등이 제시되고 그에 더한 시행 방법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요즘은 강조되는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내용을 환경교육에서 가능한 신속히 어떻게 반영하여 교육시킬 것인가, 초·중등학교의 학교 급별, 그리고 학생과 청소년 및 노년층·직장인과 주부등에 따라 같은 환경교육 내용 영역이라도 어떻게 그 내용을 재구성하여 적절히 지도할 것인가하는 등의 연구와 개발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

3)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저조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과 지역이 다양한 것과 같이 대상과 장소에 따라 주된 내용과 방법이 달라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교육은 같은 대상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필요로 하며 다양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는 다양하고 풍부하게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발되어있는 자료의 종류도 인쇄자료 중심의 상당히 오래되거나 한정된 수량이 있을 뿐이다.

4) 환경교육 지원체제 미흡

지원체제면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성있는 교사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는 환경 전공 교사 배출이 전혀 없으며, 부진공 교사들도 효율적으로 배정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일부 실시되고있는 연수 기회는, 대상과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이론과 강의식 교수-학습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환경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와 환경부 등의 담당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5) 전문성있는 환경교사 양성책 미흡

환경 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지도하는데 보다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교육 전공 교사가 아직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전공 교사 양성에서도 원래 전공 과목이 환경교육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교사들이 단기간의 일반적인 연수만 받고 배출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환경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속적인 연수가 필요한 데, 그러한 기회가 타 교과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사회 환경교육

1) 사회환경교육의 확대

우리나라 사회환경교육은 최근 가시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아직은 확대와 보급 상황이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조직 건설과 회원의 확대 및 회원 교육과정의 개발과 보급 문제가 당면한 과제이다.

2) 사회환경교육 담당자들의 지도력 부족

우리나라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들은 대체로 헌신적이며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 이론적 및 폭 넓은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제는 환경교육이 몸으로, 고발 위주의 일회성 활동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 분야 지도자들의 능력이 따르지 못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3) 재정 부족

어떤 활동에서나 재정은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특히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재정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 저명한 NGOs들은 회원 회비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이 두가지 지원 체제가 모두 지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각한 형편이

다. 따라서,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및 시설·공간동이 너무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4) 전달 체계의 미흡

사회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조직 및 의지의 미흡 현상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큰 슬픔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제 환경문제 해결에는 민간환경교육과 그 구성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이 새삼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환경단체들간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노력과 각 분야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 과제이다.

3. 환경 홍보

1) 환경 오염 및 파괴 위주의 보도

일반 보도의 경우 환경친화적 보도 보다는 환경 오염과 파괴에 관한 것이 많다. 이러한 보도는 일시적으로 환경에 관한 국민의 관심 증대와 즉각적인 대비책 수립등에 효과를 올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불안감 증대와 단기적이며 미봉책에 머무는 해결책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여러 분야에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주로 환경공학이나 생물학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견해 위주로 보도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2) 일파성의 보도

대형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집중적이며, 선정적이게도 느껴질 정도로 보도되기도 하지만, 그에 관한 지속적이며 분석적인 보도 및 평소의 예방 차원, 그리고 친환경적 의식 고양을 위주로 하는 보도가 적다. 환경문제에 관한 본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일부 언론기관에서 이러한 것에 관한 관심이 점차 늘어가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다.

3) 전문성의 부족

일부 보도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느 특정한 발표나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인 것처럼, 또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통하여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 보도하는 것도 볼 수 있다.

4) '환경'의 상품화 경향

요즘을, '환경의 세기'라고 하는 것 못지 않게 '환경'의 상품화 경향이 일부 보도와 캠페인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도 기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환경단체간의 경쟁, 심지어는 다른 기관 행사에 지장을 주는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V. 환경교육 및 홍보의 발전 방안

1. 환경교육법의 제정 추진

환경교육과 홍보를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교육법 제정을 추진해야한다. 현재, 교육부나 환경부에 많은 장관 직속 위원회 중에 환경교육 위원회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교육법 제정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나, 이제는 환경교육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본다. 이 법은 단지 학교 환경교육만을 담는 것이 아니고, 사회 환경교육과 환경 홍보의 법적 및 제도적 지원과 진흥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교육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미 1970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되었다. 미국 환경교육법(Environmental Education Act) 전문(前文)에는, 환경의 질 및 생태적 균형의 파괴(악화)가 국민의 도덕성과 활력에 위기적인 상황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균형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된 것이라는 점을 의회가 인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재 오염지역의 주민들

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의 질과 생태적 균형에 대한 지식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한다는 근거에서 이 법률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제시되고 있다.

-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환경의 질을 높이며 생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돕는 새롭고 개선된 커리큘럼을 실천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 모범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실천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 초·중·고등과정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계속교육을 위한 지원조를 한다.
- 국내 전반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보급하고 기타 정보도 널리 알린다.
-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역사회 수준에서, 교사와 기타 교육 관계자, 공공서비스 기관의 직원, 지역 기관, 노동자, 공장의 간부와 종업원, 정부의 관리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야외 생태 연구센터를 계획한다.
- 환경의 질을 높이고 생태적 균형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매스미디어가 환경과 생태문제를 쉽게 이해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배포하도록 한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는 환경관련 헌장이나 선언을 선포해왔으나, 그것의 구현 내지는 실천 효과를 느낄 수 없다. 그리고, 환경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것의 실현을 위한 하위 단계의 강력한 환경교육 실행책이 없기에 이러한 조치가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는 환경교육을 별도의 법으로 까지 강조하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서 우리 현실에 알맞은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각계의 뜻을 모아야한다고 본다.

2. 환경교육·홍보 종합 계획안의 실천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 환경교육·홍보의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연구를 거쳐 보고서가 1997년에 나왔으며, 환경부에서 이를 토대로 부처간 협조와 실행을 위한 정책 자료도 이미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환경교육·홍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같은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현재의 발전방안을 참고로 하여, 이 연구 결과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VI. 맺으며

우리나라처럼 부존 천연자원이 부족하나, 인간의 의지와 힘에 의해서 국가 발전을 추진하려는 나라일수록 교육에 의존하고,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기마련이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등 선진국은 교육의 어느 특정 분야 실천 의지와 방안을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서 수시로 직접 발표와 강조를 하고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홍보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오늘날 환경홍보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환경교육과 홍보의 문제점 분석에서 나

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결방안 추진에는 각계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동규 역·저 (1995). 세계의 환경교육, 교육과학사
- 오홍석, 류근배, 최석진(1992). 환경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최석진 외 (1992). 「중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보고서」, 한국환경교육학회
- 최석진 (1995). 「외국의 환경교육」, 전북교육, 전북교육연구원
- _____ (1996). 「환경교육의 국제적 동향」, 환경교육 세미나발표자료집, 한국환경교육협회
- _____ (1996).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교육」, 경기교육, 경기과학교육원
- 최석진, 김영민, 김재범, 이시재, 이동엽 (1997). 환경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환경부 (1997). 환경교육·홍보 종합 계획안, 환경부
- 한국환경교육학회 (1992). 환경교육, 제 4권
- John Fien,(ed), Teaching for a Sustainable World, UNESCO-UNEP, Workshop자료, Australia
- 佐島群己·中山和彦 編 (1993) 世界の環境教育, 國土社, 東京